

# 교회소식

1. 7월 당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논이 있기를 바랍니다(찬송, 기도, 안건 토의).
3. 1남선교회 주관으로 개인별 전교인 사진 촬영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촬영할 때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촬영한 사진을 보내드립니다(가족사진도 가능).
4.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성전 이전 자문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1시 30분, 느헤미야실).
5. 삶 속에서 공동체 예배에 우선을 두기 바라며 추운 겨울을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신앙적인 교제로 훈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성전 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묵상하기 바랍니다.
7. 영육으로 고통 중에 있고 수술을 앞둔 성도들에게 회복을, 비자를 신청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 u g u s t

## 교회사역일지

8월 8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8월 15일(주일)  
그루터기 주일  
8월 22일 (주일)  
권사 기도회  
8월 25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 기도순서

8월 8일 (주일)  
박제용 장로  
8월 11일 (수)  
강동호 집사  
8월 15일 (주일)  
이광희 장로  
8월 18일 (수)  
김영옥 권사

## 8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이선주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발췌서 4:6

##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31호 2021.08.01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 찬양 예배) 이성훈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름	----- 히브리서 11:6 -----	인도자
* 찬 송	----- 28장 -----	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	다함께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423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현석호 장로
성 경 봉 독	----- 창세기 24:28-34, 48-49 -----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 주님 사랑 온누리에/주의 사랑 나무십자가 찬양대 -----	
설 교	----- 종된 자의 자세 -----	이태한 목사
찬 송	----- 419장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	다함께
* 응 답 송	----- 171장 (1절) -----	다함께
*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선교란

##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자님들께

7월은 코로나 악재와 위쪽의 폭동, 사역지의 택시 파업 등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더구나 비바람을 동반한 강추위로 큰 산에 눈도 오고 저지대는 물에 잠겨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주마의 수감으로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 더반에서 촉발된 폭동으로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곳도 실업유령을 걷는 듯하였으나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이곳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부를 몰고오셔서 답을 아직 못 드렸는데 이제야 소식을 드리게 됩니다. 이번 폭동과 약탈로 남아공의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코로나와 정치 경제 그리고 교회를 위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일예배:** 이번 7월 한 달은 Covid19 레벨 4단계로 격상되어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사역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오래다 보니 안 그래도 교회 나오기 싫는데 폭동과 코로나가 위협하고 유별나게 비도 많이 오고 추운 날이 계속되어 일부 성도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있지만 그중에 신실한 아이들과 성도들이 몇몇 성장과 진보를 보이고 있어서 때론 힘을 잃었다가도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게 됩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를 통과하며 다들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심리적인 불안정도 있어서 생필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였습니다.

**현지 교회 담요 지원:** 지역 교회 데니스 목사님과 장로님 내외분이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고급 담요를 가지고 오셔서 교회 봉사도 잘하고 성실한 아이들을 선별하여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너무 감격스러웠고 앞으로 좋은 동역을 하기로 약속을 하여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노숙자 지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이들이 몹시 걸립니다. 그래서 빵과 우유 과일을 사서 홀리스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올리아 부쿠 페밀리(이정옥, 이하영 선교사님)가 집필하신 교재가 한 글판으로도 나와서 더욱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내외분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역을 쉬 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탬바니(16) 2년 전 교회를 떠났지만 마음은 이곳에 있어 교훈을 하며 장래를 위해 상담을 했습니다.

2021년 07월 28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드림

### 기도제목

1. 폭동과 파업이 진정되고 사회의 안정이 잘 회복되도록.
2. COVID-19로 현지 신앙인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도록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한누리 집사
성	경	Scripture	출애굽기 3:1-5
경	봉		
독	교	Sermon	거룩은 장소가 아닌 관계이다
설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453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 나눔란

## 2021년 7월 25일 주일 설교말씀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창세기 24:10-15, 21-27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하고 복잡한 인생살이에서 영적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승리할 수도 낭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에게 신임을 얻는 기쁨도 누렸지만 그만큼 큰 책임감으로 염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 두기:**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700km 거리로 한 달 반의 긴 여정이었음에도 이 종은 도착하자마자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부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12). 그런데 그 은혜조차도 자기가 아닌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고전 15:10) 그 은혜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시선 두기:**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와 인도하심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21). 종이 확인하려 했던 이삭의 배필의 인품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며 지원하여 봉사하고 짐승까지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어진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14).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한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자를 찾기 원했습니다. 리브가는 해 저무는 시간에 우물물을 1톤가량이나 더 길어야 함에도 급히 자발적으로 움직였을 뿐 아니라 짚과 사료와 유숙할 곳(25) 즉 자기 것을 희생하며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롬 12:13)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14)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난(15) 이런 즉각적인 응답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아직 험한 풍랑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은 것처럼(행 27:24-25) 광풍 속에서도 광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나도 푸른 풀밭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시 23:2) 믿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시선 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브라함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았을 때 이 종은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26-27).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염려되고 불안한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현실이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요일 5:4).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말과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 신앙 기준이 진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수고, 내 지식, 내 신앙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갈보리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2.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힘으로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코로나로 사경을 헤매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간섭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